

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.

- 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, 새로 건설된 스마트시티 내에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매커니즘과 해당 매커니즘의 복원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함.
 - 이 밖에도,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, 스마트시티로 이주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창출과 발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도 중요한 원칙으로서 에코시티 계획과정에서부터 포함돼야 함.
- 자연과 조화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고층 고품질의 주거용 건물과 그 인근에 개발될 레저시설, 쇼핑센터 등 적절한 규모의 녹색 인프라 스톡에 기반한 건조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, 다양성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복원력이 부재하면, 금융위기 이후 두바이의 사례가 보여주듯이, 스마트시티는 지속성이 결여된 도시를 총칭하는 ‘non-place’로 전락할 수 있음.

빈재익(연구위원 · jipins@cerik.re.kr)